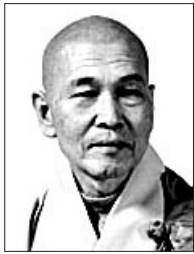


### 백양사 방장 지선 스님 승좌고불법회 열린다

4월 20일 대웅전서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지선 스님(사진)의 승좌고불법회가 열린다.



조계종 제18교구본사 백양사(주지 진우)는 “오는 4월 20일 오후 2시 대웅전 마당에서 지선 스님의 방장 고불법회를 봉행한다”고 4월 8일 밝혔다.

이날 법회는 중앙승가대 교수 미산 스님의 행장 소개와 백양사 주지 진우 스님의 추대 고불문이 발표되며, 조계종 원로의장 밀운 스님, 총무원장 자승 스님, 이기흥 중앙신도회장 등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불총림 유나 일수 스님과 선원장 무아 스님이 불자와 법장을 지선 스님에게 봉정한다.

고불총림 前 방장 서용 스님의 전법 제자인 지선 스님은 1961년 백양사에서 석산 상현 화상을 은사로 사미계를 받고 1967년 범어사에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스님은 제주 관음사, 영광 불갑사, 장성 백양사 주지와 조계종 종정 사서실장, 실천불교전국승가회 공동의장, 고불총림 백양사 유나, 백양사 수좌 등을 역임했다. 신성민 기자

# 나누고 함께하며 ‘마음 등불’ 밝히세요

연등회 4월 25~27일 종로 일대서... 봉축행사 주요 일정 확정

석가모니 부처님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기리고 자비광명으로 세상을 밝히기 위한 봉축행사와 연등회 연등축제가 4월 한달간 다채롭게 진행된다.

연등회 보존위원회·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자승, 이하 봉축위는 4월 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하며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중요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가 4월 16일 오후 7시 광화문 점등식을 시작으로,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서울 조계사 우정국로와 종로 일대에서 개최된다”고 주요 봉축행사와 연등회 연등축제의 일정을 발표했다.

올해 광화문을 밝힐 조형 등 ‘미륵사지탑등’으로 국보 제 11호 익산 미륵사지탑을 전통등으로 형상화했다. 크기는 좌대를 포함해 20m에 이르며 회화적인 면을 가미해 전통 한지 장엄등이 갖는 화려하고 은은한 맛을 살렸다.

광화문 점등식과 더불어 서울 종로와 청계천 등 서울시 전역에는 5만여 개의 가로연등이 설치돼 서울의 야경을 아름답게 수놓을 예정이다.

내외국인 30만명이 참가해 글로벌 축제로 거듭나고 있는 연등회 연등축제는 4월 25일부터 27일 종로 일대에서 열린다.

4월 25일부터 조계사 옆 우정공원, 삼성동 봉은사와 청계천에서는 전통 등 전시회가 각각의 테마를 가지고 열린다. 조계사에서 직접 행렬에서 사용되는 등을 만날 수 있으며, 청계천에 전시되는 등은 호국불교를 주제로 꾸며진다. 봉은사에서는 어린이들이 그린 등과 법고를 주제로 전문작가가 만든 작품 8점이 전시된다.

4월 26일 오후 4시 30분부터는 동국대 운동장에서 5만 명의 흥겨운 춤사위와 신나는 노래의 어울림마당과 연등법회가 봉행되며, 직후에는 10만 연등 물결이 종로 일대를 수놓는 연등행렬이 이어진다.

특히 이번 연등행렬에는 최초로 천연 염색을 사용해 복원한 전통 한지 초롱등이 공개돼 눈길을 끈다. 또한 문헌으로 고증된 다양한 행렬등이 선보일 예정이다.

박상희 봉축위 사무국장은 “50년 전 만든 초롱등 모형을 노스님에게 지난해 기증 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증해 복원한 것”이라며 “치자와 소목, 시금치를 이용해 천연염색을 해 전통적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행렬등에는 초와 LED 전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등행렬 후 진행되는 회향한마당도 특



지난해 열린 연등회 어울림 마당 모습. 올해에는 한지 초롱등이 처음으로 복원되며 소형 행렬등에는 LED 전구가 사용된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오는 4월 16일 광화문서 점등식

‘미륵사지탑등’... 플래시몹 시연도

천연염색 사용한 초롱등 최초 복원

‘행렬등에 초·LED 사용 확대할 것’

‘이웃과 등 나누기’ 캠페인 최초 시행

회향한마당서 국제적 강강술래 예정

올해도 글로벌 서포터즈 활약 ‘기대’

별한 이벤트가 준비돼 있다. 국민 불자 국악인 박애리 씨가 회향한마당을 통해 신곡 ‘초파일 아리랑’을, 대화가요제 출신 가수 우순실 씨가 ‘벗이여 오라’를 각각 발표한다. 또한, 연등회 글로벌 서포터즈의 주도로 내외국인이 함께 어울리는 강강술래도 진행된다.

4월 27일 정오부터는 조계사 일대에서 전문문화마당이 펼쳐진다. 올해에는 외국인 연등만들기 경연대회가 어린이와 함께하는 가족 참여로 확대돼 2번에 나눠 진행되며, 국제 부스에는 인도네시아 불교가 처음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6면> 신성민 기자 mtp79@hyunbul.com

### 내년 창종 50주년 맞는 관음종 기념위원회 결성

관음종은 내년 창종 50주년을 맞아 기념사업위원회를 결성하는 등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관음종은 4월 7일 실행위원회 결성 회의를 통해 창종 50주년 기념사업 전개를 위한 전 단계로 태허 조사스님의 답비와 부도를 출가 분사인 전남 순천 선암사와 협의해 봉안키로 했다. 이에 오는 6월 18일 제막식을 봉행함과 동시에 태허스님의 은사인 경운 원기 선사와 태허 스님의 사경과 관련한 세미나도 개최키로 했다.

또한 내년에는 창종 50주년 기념 본사업의 일환으로 관음종 50년사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키로 했으며, 50년사를 책으로 묶어 전국사찰 및 도서관과 일반 대중에게 배포한다.

기념행사도 내년 10월~12월중 음악 공연과 함께 성대히 봉행할 계획이다.

한편 창종 5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봉행위원장으로서는 흥파스님이, 실행위원장으로서는 도각스님, 실행간사는 법룡 스님이 각각 선임됐다. 김주일기자

## 대불련 동문회, ‘통합’ 선언

9일 백효흠 통합회장 추대  
수석부회장 체제 조직 정비  
대불련 지원 등 3대 원칙 수립

대불련총동문회(회장 백효흠)와 전국동문회(대표 홍종표)를 비롯한 대불련 동문단체들이 ‘통합 선언’을 하고 새로운 동문회 구성을 천명했다.

‘대불련동문회’는 4월 9일 전법회관 중앙신도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을 선언했다. 이날 통합 선언은 지난해 2월 총회에서 회장 선출 파행으로 총동문회와 전국동문회가 양분된지 1년 만의 일이다.

백효흠 통합동문회 회장은 “양분된 동문회였지만 동문들 각자의 마음에는 대불련을 아끼는 애정의 마음이 있었다. 그 마음이 원동력이 돼 오늘의 통합을 있게 했다. 다소간 분열과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이번 통합을 계기로 대불련이 새롭게 발돋움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홍종표 통합동문회 수석부회장(前 전국동문회 회장)은 “백효흠 회장이 조지 개편



지난해 양분돼 내용을 겪었던 대불련 동문들이 4월 9일 통합 선언을 하고 갈등을 마무리했다.

등 전국동문회의 요구를 수용하며 전격적으로 통합하게 됐다”고 했다.

대불련 동문회는 이날 ‘통합동문회 3대 기본원칙’을 발표했다. 3대 원칙은 △대불련의 정통성과 체계를 계승하는 조직연합체를 기본으로 한다 △동문회 활동방향은 대불련 발전을 위한 실천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 △사단법인은 통합동문회의 산하단체로 위상을 재정립한다 등이다.

백효흠 회장은 “명칭은 정통성을 지닌 총동문회로 할지, 새로운 통합동문회로 할지, 중앙동문회로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그동안 인맥 중심의 동문회에서 각 위원회와 지역 중심의 조직으로 개편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대불련 동문회는 지난해 12월 25일 임시총회를 열고 지난 회장 선출에서 문제가 됐던 회칙을 개정된 상태다. 또한 4월 20일 임원과 지도위원 고문단 명예회장단 등을 재추대할 계획이다. 수석부회장은 홍경희(서울대, 여성 조직), 이영호(前 열린우리당 의원, 지역), 홍종표(세대 통합), 전명철(숭실대, 대외업무) 등 4명과 종단 관련 업무를 맡을 1명의 부회장을 포함해 모두 5명으로 구성됐다. 사무총장은 정용학 씨가 맡는다. 백 회장은 “올해는 동문회의 새로운 원년이 될 것”이라며 “정통성 회복 및 사회 각층에서 활동하는 동문을 결집해 지부를 22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조계종, 세종시 사찰 건립 부지 확보

11일 부지 확정 발표... 연기면 전월산 일대

신도시 포교를 중점 과제로 삼고 있는 조계종이 세종시 시대를 열어갈 사찰 불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신도시 거점 사찰 건립사업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 내에 세워질 사찰 부지를 확정 발표했다. 사찰 건립부지는 연기면 세종리 7153-1번지(구 양화리) 일대 약3,000평으로서 전월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4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종재 건설청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조현태 세종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재무부장 보경스님과 신도시 총책 특보 허운스님의 부지계약 체결에 대한 보고를 들었다.

자승 스님은 “세종시에 건립되는 사찰은 대표적인 전통사찰로 건립하겠다”면서 “세종시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사찰로서 세종시민과 세종시를 방문하는 외국인 등에게 한국사찰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섬터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재 청장은 “행정 수도인 세종시에 한국인의 정신문화를 선양·선도하는 사찰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4월 11일 이종재 세종시 건설청장 등 관계자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이 건립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계종은 부지 확보를 시작으로 관련된 정에 맞게 사찰 개원을 목표로 세부적인 불사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매입한 종교용지로는 도량에 다양한 시설을 건립하기에 부족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종교용지의 추가 매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는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중앙행정기관 36개 부처가 입주해 있으며 대통령기록관을 위시한 각종 정부부설기관 및 국제연구기관 등이 이전하거나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 신성민 기자

# 무소의 뿔처럼

## 불음당 범능스님 1주기 추모음악제 찬불경연대회

본선 2014. 6. 14 토 PM 7:00

광주 광산문화예술회관

참가신청 범능스님홈페이지 : www.buleum.pe.kr  
우편 : 광주시 서구 쌍촌동 산1번지 불교회관 101호  
문의 : ☎ 010-4614-2581

예심 5월 17일 광주 남구종합예술회관  
예심지정곡 : 천의선 천의는, 공심공체 돌아난노래, 꽃길

상금 대상 300만원, 최우수상 200만원, 우수상 100만원  
장려상 50만원, 특별상 50만원

주관 | 사)불지불교문화원 주최 | 범능음악계승사업회, BBS광주불교방송부루나합창단